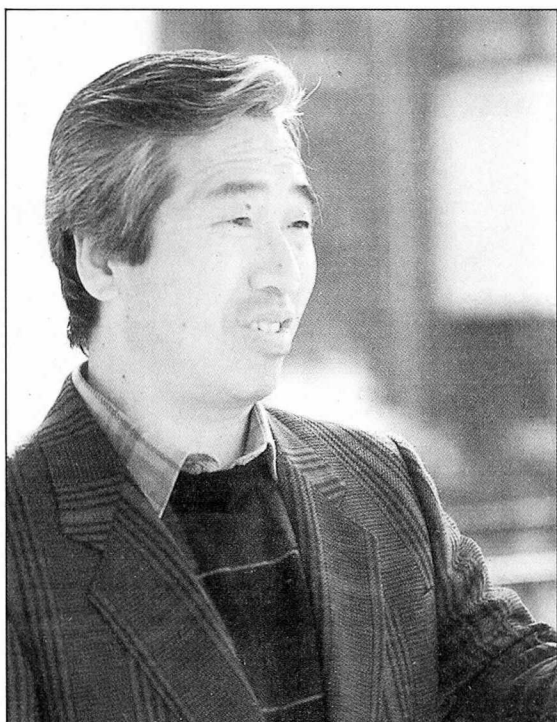


허무주의와 싸우는 건강한 역사의식

대하소설 「먼동」 완간한 작가 홍성원씨



기존의 대하소설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의 민중들의 삶을 담아낸 「먼동」은, 그러나 그것들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설혹 중심인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평범한 민초로서의 보편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먼동」에는 한 개인의 두드러진 행적의 묘사가 없다.

홍성원씨.

꼼꼼하고도 폭넓게 작품을 찾아 읽고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평론가들에 비해 훨씬 여유롭고, 때에 따라서는 험령하기까지 한 책읽기가 허용되는 평범한 독자들이 갖는 한 작가에 대한 인상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두루뭉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 홍성원씨(54)에 대한 말 그대로의 '인상'은 "선이 굵고 직설적"이다.

혹자는 '소설공장'이라는 말로 '쟁이' 혹은 '꾼'으로서 그의 소설가적 근성을 빗대기도 하고, '건강한 다이내미즘'이라는 명명으로 그의 작품세계를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칠

게나마 그의 작가적 성격을 어렵잡아 볼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작가 자신의 발언에서 찾아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연전에 출간된 한 작품집의 서문에서 그는 "사물의 움직임은 간접화법으로 설명하는 것을 나는 꺼린다"고 했거니와, 덧붙여 "소설은 사물의 움직임을 글로 표현한 것"이며 "보여줘야 될 움직임을 간접화법은 설명으로 대신한다. 설명은 움직임이 지닌 고유의 민첩성과 현장성을 훼손한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그에게서 느끼는 '직설적'이라는 인상은 이러한 작가고백의 역설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

고, 그동안 그가 쏟아낸 다양다기한 작품들의 거개가 섬세한 묘사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아무리 소품이라도 그 주제 의식이 돋보임으로써 뚜렷하게 그려진 '굵은선'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은 최근 완간된 대하소설 「먼동」(동아일보사)에 이르러서는 완고한 그의 역사인식에까지 확산된다.

선 굵은 역사의식의 확산

지난 1977년 발표된 「남과 북」(전7권) 이후 또 하나의 대작으로 선보인 「먼동」(전5권)은 8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됐던 작품으로 그의 작가 경력 30년을 중간 결산하는 이정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20세기 벽두, 그때까지 지속됐던 봉건체제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던 1901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3·1운동에 이르는 20여년간을 시기적 배경으로, 그리고 당시 경기도 남양에서 수원, 서울로 이어지는 무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작가의 말을 빌면 "우리 역사상 가장 참담하며 슬프고도 노여운 시대"에 대한 한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계급구조를 대표하는 양반, 중인 천민의 세 집안이 격동과 변혁의 구한말을 맞아 빚어내는 혼란한 가족사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의 중심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김효순, 김상민, 김영환, 김동석으로 대를 잇는 한 사대부 종가가 그 한 축을 이루고, 박종학과 그의 동생 박승학, 아들 박인섭으로 구성된 算官 출신의 중인 집안이 다른 한축을 이룬다. 여기에 김씨 집안의 외계노비 송근술과 그 자식들인 쌍순, 필배 쌍동이 오누이가 합세해 위

어내는 부침의 세월이 과란만장하게 전개된다. 소설 전반부에서는 김씨 일가와 송씨 가족 사이의 갈등을, 후반부에서는 일제하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등장인물들의 행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와해되고 각 일가와 개인의 몰락과 상승이 연출된다.

기존의 대하소설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의 민중들의 삶을 담아낸 이 작품은 그러나, 그것들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먼동」의 등장인물들은, 설혹 중심인물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평범한 민초로서의 보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먼동」에는 한 개인의 두드러진 행적, 예를 들어 의병운동이나 독립운동 같은 대사회적 행동이 묘사되지만, 그것을 영웅적인 것으로 부각시키진 않는다. 반대로 친일행위에 대해서도 그 근원적 원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설블리 단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격랑의 시대의 상징인 '공인된' 영웅을 제거하고, 선인과 악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희석 시킴으로써, 대신 역사의 질곡에서 인간이 지닌 적나라한 보호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당대의 보편적 삶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으로써 대미를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역사의 질곡에서 보편적 삶 표출

작가는 이 시대를 "민족 구성원 전체가 적극적으로 수동적이든 자기 자기 양심이 멎는 바에 따라 폭압적 외세에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두개의 상반된 집단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

이의용 컬러예화집

돈이 보낸 편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165편이 여기에 있다"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진실은
단 한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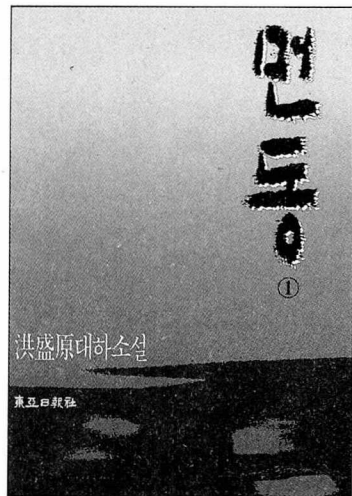
도서출판 대림기획 TEL : 268-4902 FAX : 277-6946

내야 했던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가지뿐이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건지기 어려운 고통이요 부담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이런 역사에 대한 포용력은 당대의 보편적 삶의 충실한 재현이라는 作意 아래 허용되는 역사순응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역사에 대한 나름의 譯法을 제시함으로써 역사허무주의, 역사냉소주의를 능동적으로 극복하려 한다. 즉 지난날의 인류 역사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고 불의와 거짓이 패배하는 기록보다는 그 반대의 불행한 기록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서 자칫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지만, 한편으로 기록된 사실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수많은 평범한 개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결국 잘못 진행되는 역사에 동조하거나 협조하기보다는 저항적인 몸짓을 보인다는 사실에 역사허무주의는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역사인식이야말로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먼동」 사이를 관통하는 「건강함」의 한 증표라고 할 수 있다. 이 건강함은 소설의 공간과 시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소설의 형식을 빈 「현실」이라든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식으로 나타난다.

평론가 오생근씨는 이러한 홍성원의 작가적 개성에 대해 "현실의 절망적 측면을 비참한 절망의 언어로 기록하지도 않고 그와 반대로 터무니 없는 낙관론을 내보이지도 않은 채, 냉정하게 그러나 정열을 갖고 그 현실에 부딪치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뚜렷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오랜 그의 작품활동에서 일관되게 건지돼온 이 「원칙」은, 그동안 그가 왕성하게 쏟아놓은 작품들 속에서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수용돼 왔다. 그의 관심이 정치(「디데이의 兵村」 「빙점지대」 「삼인행」), 6·25(「남과북」), 세태풍자(「주말여행」 「무전여행」 「이인삼각」), 지식인(「즐거운 지옥」 「脫身」 「武士와 樂士」), 문명비판(「종합병원」 「프로방스의 이발사」) 등 그 어느 곳에 놓여지더라도 예외 없이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이런 인간의 자구능력에 대한 신뢰는 휴머니즘,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인문주의적 휴머니즘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자신도 "인간의 삶의 근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탐구가 곧 인문과학이라 할 때, 그 기본 내용은 사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한 십여년 전쯤, 심각하게 찾아왔던 그리고 어느 작가나 느꼈음직한 "벽에 못 하나도 못박는 문학"에 대한 회의나 "내가 쓰는 글에 내가 설득이 안되는" 작가적 능력에 대한 회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가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옹호를 소설화하는 데 몰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세계를 대하는 '고통스런 기쁨'에 대해 "時俗에 매이지 않고 꾸준히 자기 세계를 자신의 관심사 속에서 추구하는 굼뜰한 정신을 엿볼 수 있게 된 때문이기도 하며, 더욱이 그것이, 세태와 의식의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감명과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전통적 문학관에 대한 재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수적인 세계인식이라 해서 그것이 前時代史일 리만은 없으며 고전적인 인간 가치의 옹호라 해서 현대인의 심성에 효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이제 머리 기웃기웃한 중년의 한바다에 와 있는 홍성원에게서 우리가 느끼는 감회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평론가 김병익씨의 시선이 함축하고 있는 바도 바로 '홍성원 문학'이 갖는 이런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의미부여에 다름아닐 듯하다.

독특한 영역 구축한 '전천후작가'

정확히 42개월간 계속된 「먼동」의 집필을 위해 그는 자료용 「私辭典」을 따로 만들었다. 무대인 경기지방의 사투리나 각 계층 특유의 용어들, 그리고 구한말 당시의 문물과 풍속에 대한 고증을 위해 틈틈이 모은 작가사전이다. 무엇보다도 작가의 근력과 오랜 사전준비를 요구하는 대하소설에 일찍이 관심을 보여왔던

그는 종종 듣직한 '전천후작가'로도 불린다. 장편과 단편을 두루 섭렵하는 그의 문학적 정력에, 이제 그의 작가이력이 덧붙여져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그를 이른바 '전업작가'의 효시로 보는 이도 있다. 1964년 두개의 일간지 신춘문예에 각각 단편과 장편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발을 디딘 이래(그에 따르면 196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 입선이 그의 문단데뷔 년도가 된다) 지금까지 그는 그야말로 "소설만 써왔다." 한번도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동안의 세월은 줄곧 "나를 놀라게 한 것들, 상식이 깨지는 순간을 붙잡아 그 원인을 캐기는", 그의 일상이 고스란히 소설의 밑그림을 이루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끔씩 훌쩍 떠나곤 하는 바다낚시가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재정비의 의식이기도 하다. 남해를 중심으로 녹동, 완도, 여수 근방이 그가 즐겨찾는 곳이다. 동행없이 떠나는 이 바다낚시는 그에게 "결국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지루해져 바로 시선이 내게로 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행위"이다.

"이제는 어떤 이념, 범박하게 말해 사조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나 "관심이 없거나 편하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찾아서까지 읽지는 않는다"는 다른 작가들의 최근작에 대한 태도는 그가 그동안 체득한 작가적 통찰력과 신중함으로 다가온다. 톨스토이의 인간본성에 대한 성실한 천착, 까뮈의 자기 삶에 대한 엄격성 등을 작가의 소중한 미덕으로 꼽는 이유도 그의 이런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 정소연 기자

디자인 커넥션은

겨울밤... 머리맡에 두고 잠들면 좋은 꿈을 꿀듯한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쓰는이의 생각을 읽는이에게 그대로 전할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꿈을 연결하는 일...

좋은 책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라면 얼마든지 해낼수 있는 일이고

전문가라면 그 일에 대한 보람도, 알것입니다.

전문가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론 알것입니다.

